

2027학년도 수능 국어 개념 학습

# 월간 간쓸개 프리뷰 **독서**

- 매주 한 개념, 매일 1지문
- EBS 학습 전, 개념 체계 확립
- 4주 구성, 독서 개념 4개+16set

# INDEX

독서		권장 시간	문제편	해설편	
01	개념 학습	주제 읽기, 구조 읽기, 문맥 읽기	-	8쪽	-
	인문	결정론과 자유 의지의 양립 가능성	11분	16쪽	72쪽
	과학	나선 은하의 구조와 나선팔의 형성	12분	18쪽	73쪽
	과학	유연관계를 나타내는 계통수	11분	20쪽	74쪽
	사회 통합	형법상 명예 훼손죄와 인터넷 명예 훼손죄	14분	22쪽	75쪽
	독서론	책망의 주요 원인	5분	25쪽	77쪽
02	개념 학습	독해 요소 ① - 개념 / 독해 요소 ② - 관점	-	26쪽	-
	사회	책임 조각 사유로서의 법률 착오	11분	32쪽	78쪽
	기술	캐시 메모리의 원리와 작동	11분	34쪽	79쪽
	인문	니체의 철학	10분	36쪽	80쪽
	인문 통합	서양 과학의 유입과 그에 대한 유학자들의 대응	15분	38쪽	81쪽
	독서론	추론적 독서의 과정	5분	41쪽	83쪽
03	개념 학습	독해 요소 ③ - 분류 / 독해 요소 ④ - 비례·반비례 관계	-	42쪽	-
	과학	면역 관용 유도법	12분	46쪽	84쪽
	사회	배심원 재판 제도의 위헌성 여부	11분	48쪽	85쪽
	기술	TMD 기술을 이용한 진폭 감소	12분	50쪽	86쪽
	사회 통합	빈곤 지수를 통한 빈곤의 측정과 빈곤 지수의 정책적 활용	15분	52쪽	87쪽
	독서론	이중 부호화 이론	5분	55쪽	89쪽
04	개념 학습	독해 요소 ⑤ - 순서·과정 / <보기> 문항을 풀어 가는 알고리즘	-	56쪽	-
	사회	공개 시장 조작	11분	62쪽	90쪽
	기술	정방향 색인과 역방향 색인	12분	64쪽	91쪽
	과학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12분	66쪽	93쪽
	예술 통합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한 칸트의 관점과 그에 대한 비판	14분	68쪽	94쪽
	독서론	주제 통합적 독서	5분	70쪽	96쪽

# STUDY PLAN

- 매일 조금씩 차근차근 공부하기!
- 꾸준한 학습으로 국어의 감 잡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플러스 문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01	개념 학습 <input type="checkbox"/>	인문 <input type="checkbox"/>	과학 <input type="checkbox"/>	과학 <input type="checkbox"/>	사회 통합 <input type="checkbox"/>	독서론 <input type="checkbox"/>
	주제 읽기 구조 읽기 문맥 읽기	결정론과 자유 의지의 양립 가능성	나선 은하의 구조와 나선팔의 형성	유연관계를 나타내는 계통수	형법상 명예 훼손죄와 인터넷 명예 훼손죄	책명의 주요 원인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02	개념 학습 <input type="checkbox"/>	사회 <input type="checkbox"/>	기술 <input type="checkbox"/>	인문 <input type="checkbox"/>	인문 통합 <input type="checkbox"/>	독서론 <input type="checkbox"/>
	독해 요소 ① - 개념 독해 요소 ② - 관점	책임 조각 사유로서의 법률 착오	캐시 메모리의 원리와 작동	니체의 철학	서양 과학의 유입과 그에 대한 유학자들의 대응	추론적 독서의 과정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03	개념 학습 <input type="checkbox"/>	과학 <input type="checkbox"/>	사회 <input type="checkbox"/>	기술 <input type="checkbox"/>	사회 통합 <input type="checkbox"/>	독서론 <input type="checkbox"/>
	독해 요소 ③ - 분류 독해 요소 ④ - 비례 · 반비례 관계	면역 관용 유도법	배심원 재판 제도의 위헌성 여부	TMD 기술을 이용한 진폭 감소	빈곤 지수를 통한 빈곤의 측정과 빈곤 지수의 정책적 활용	이중 부호화 이론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04	개념 학습 <input type="checkbox"/>	사회 <input type="checkbox"/>	기술 <input type="checkbox"/>	과학 <input type="checkbox"/>	예술 통합 <input type="checkbox"/>	독서론 <input type="checkbox"/>
	독해 요소 ⑤ - 순서·과정 / 〈보기〉 문항을 풀어 가는 알고리즘	공개 시장 조작	정방향 색인과 역방향 색인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한 칸트의 관점과 그에 대한 비판	주제 통합적 독서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 Checklist

✔ 2차 독해 시간은 '충분히'

		독서	독해 시간	맞은 문항 수	체감 난이도
01	개념 학습	주제 읽기, 구조 읽기, 문맥 읽기	충분히	-	-
	인문	결정론과 자유 의지의 양립 가능성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과학	나선 은하의 구조와 나선팔의 형성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과학	유연관계를 나타내는 계통수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사회 통합	형법상 명예 훼손죄와 인터넷 명예 훼손죄	· 1차: 분 초 · 3차: 분 초	/6문항	上 / 中 / 下
	독서론	책맹의 주요 원인	· 1차: 분 초 · 3차: 분 초	/3문항	上 / 中 / 下
02	개념 학습	독해 요소 ① - 개념 / 독해 요소 ② - 관점	충분히	-	-
	사회	책임 조각 사유로서의 법률 착오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기술	캐시 메모리의 원리와 작동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인문	니체의 철학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인문 통합	서양 과학의 유입과 그에 대한 유학자들의 대응	· 1차: 분 초 · 3차: 분 초	/6문항	上 / 中 / 下
	독서론	추론적 독서의 과정	· 1차: 분 초 · 3차: 분 초	/3문항	上 / 中 / 下
03	개념 학습	독해 요소 ③ - 분류 / 독해 요소 ④ - 비례·반비례 관계	충분히	-	-
	과학	면역 관용 유도법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사회	배심원 재판 제도의 위헌성 여부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기술	TMD 기술을 이용한 진폭 감소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사회 통합	빈곤 지수를 통한 빈곤의 측정과 빈곤 지수의 정책적 활용	· 1차: 분 초 · 3차: 분 초	/6문항	上 / 中 / 下
	독서론	이중 부호화 이론	· 1차: 분 초 · 3차: 분 초	/3문항	上 / 中 / 下
04	개념 학습	독해 요소 ⑤ - 순서·과정 / <보기> 문항을 풀어 가는 알고리즘	충분히	-	-
	사회	공개 시장 조작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기술	정방향 색인과 역방향 색인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과학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예술 통합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한 칸트의 관점과 그에 대한 비판	· 1차: 분 초 · 3차: 분 초	/6문항	上 / 中 / 下
	독서론	주제 통합적 독서	· 1차: 분 초 · 3차: 분 초	/3문항	上 / 中 / 下

## 독해 요소 ① - 개념

지문에 제시된 개념의 개수가 많다면 필연적으로 정보량이 많아진다. 개념의 개수가 적다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기억에만 의존해서 해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정도로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첫 통독 과정에서 개념 표지들에 적절한 표시를 해 둔다.
- ② 문제의 선지가 어떤 개념에 대한 진술인지를 분명히 한다.
- ③ 선지에 진술된 개념과 관련된 진술을 지문에서 확인한다. 이때 지문에 미리 해 둔 표시를 활용한다.
- ④ 지문의 진술과 선지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 2017학년도 9모 사회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는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개념②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 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개념들이 무수히 많아 매우 높은 밀도의 독해가 요구된다.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는 개념 표지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문의 큰 흐름을 장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문단에서는 권리 능력의 개념과 단체(→ 사단, 사단법인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권리 능력은 단체의 '법인격과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문의 내용이 '사단 법인' 중에서도 '회사',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로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일인 주식회사'의 경우를 제시하며 일인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격과 대표 이사의 권리 능력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단의 흐름을 장악하여 독해했다면, 여기에서는 엄격하게 구분된 법인격과 권리 능력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 이제 지문의 흐름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념 표지들에 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함을 잊지 말자. 선지에서 특정 개념에 대해 물어볼 경우 해당 개념의 내용을 다시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 □ 표시한 부분은 지문에서 확인했던 개념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문에 표시해 둔 해당 개념 표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된다.

37. ㉔~㉞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② ㉕: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③ ㉖: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④ ㉔: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⑤ ㉞: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 각 선지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위치한 부분의 주변 문맥을 장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문의 큰 흐름을 장악해 가면서 독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느껴보자.

38. 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특정 개념에 대해 묻고 있다. 해당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인격 부인론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집중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법상 '책임'이란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근대 이후의 형법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행위 당시의 상황이 비정상적이어서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책되는 사유를 '책임 조각 사유'라 한다. 그중 ㉠ '책임 무능력'은 어떤 위법한 행위가 강요나 심신 상실(心身喪失)에 의한 것이라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는 사유를 말한다. 그 외에 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책임 조각 사유로 ㉡ '법률 착오'가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 인식이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위자의 인식을 ㉣ 뜻한다.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은 처벌의 핵심 근거가 된다. 다만 위법성 인식에 있어 법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나 형량 등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착오란 행위자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한 인식은 있으나 착오나 오인으로 인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를 ㉤ 말한다.

우리 형법은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법률 착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오인한 행위'에는 관련 법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판례는 이것이 법률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운전자가 변경된 교통 법규를 ㉥ 모르고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지 않는다. 또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률 착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개는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고 타인의 개를 사살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6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오인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때에 한정된다. 예컨대 선물로 ㉦ 받은 뇌물은 뇌물 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막연하게 믿고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때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나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잘못 전달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은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않음을 뜻한다. 다만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관련 법에 과실범에 관한 조항이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어 과실범으로 판결하기도 한다.

≡ 독해 TIP

개념 중심의 지문에서는 개념들 간의 열거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책임'을 범죄의 요건으로 이해한다면, 이어서 '책임 조각'이 범죄의 요건 중 하나인 책임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책임 조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책임 무능력'과 '법률 착오'를 파악해야 한다. 지문에 제시된 개념들은 앞서 제시된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심화 개념일 수도, 앞선 개념에 속하는 하위 개념일 수도, 앞선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문에서 개념들이 전개되는 양상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의 형법은 행위자의 '책임'을 처벌과 연결시키지 않았다.
- ②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은 법에 의한 처벌의 주요 근거가 된다.
- ③ 도덕에 의해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되는 행위도 '법률 착오'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④ '법률 착오'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정당한 이유가 분명할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 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한다.

! 핵심 개념들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익힌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행위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 ② ㉠과 ㉡은 모두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 ③ ㉠과 ㉡은 모두 행위자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한 인식이 없는 상황이다.
- ④ ㉠은 ㉡과 달리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은 있으나 강요에 의해 행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이다.
- ⑤ ㉡은 ㉠과 달리 행위자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형량을 정확히 알 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사유이다.

! 핵심 개념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어느 형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미숫가루 제조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A 씨는 미숫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전에 이 사업이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관계 기관에 문의하였다. 이 기관의 공무원은 다른 사안과 혼동하여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A 씨에게 전달하였다. A 씨는 이를 믿고 사업의 허가 없이 미숫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그 오인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벌을 면한다고 판결하였다.

- ① A 씨에게는 허가 없이 미숫가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 ② A 씨의 오인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검토한 후 그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 ③ A 씨의 행위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등 오인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충분했다고 본 것이다.
- ④ A 씨는 관계 기관의 공문을 그대로 믿고 미숫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했으므로 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 ⑤ A 씨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한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내용을 오인한 법률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4.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지나가던 사람이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물었다.
- ② ㉡ : 내년에는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 ③ ㉢ : 수채화란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을 말한다.
- ④ ㉣ :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 ⑤ ㉤ :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물통에 빗물을 받았다.

[1~4] 사회

## 책임 조각 사유로서의 법률 착오

▶ 해당 지문이 어려웠다면, 지문 분석 108쪽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1 답 ②

세부 정보 파악 ★☆☆☆☆

## 정답 설명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은 처벌의 핵심 근거가 된다.

## 오답 설명

- ①: 근대 이후의 형법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후'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시점, 즉 근대에도 '책임'이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 ③: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률 착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법률 착오'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관련 법에 과실범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 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위자의 인식은 '위법성 인식'으로서 처벌의 근거가 된다. 형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오인을 피할 수 없었을 때이다.

2 답 ④

개념 비교 ★☆☆☆☆

## 정답 설명

㉠[→ 책임 무능력]은 위법한 행위가 강요나 심신 상실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강요에 의해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은 있을 수 있다. 반면 ㉡[→ 법률 착오]은 착오나 오인으로 인해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 오답 설명

- ①: 책임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행위자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책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과 ㉡은 모두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 ②: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과 ㉡은 모두 이러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에서 행위자가 강요에 의해 행할 경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다. ㉡의 경우에도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있다. 그것이 위법하다는 위법성 인식이 없을 뿐이다.
- ⑤: ㉡은 착오나 오인으로 인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행위에 대한 형량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며, ㉠이 정확한 형량의 인지를 조건으로 하지도 않는다.

3 답 ③

지문의 개념을 &lt;보기&gt; 사례에 적용 ★★★★★

## &lt;보기&gt; 설명

A 씨가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A 씨가 관계 기관에 문의했는데 공무원이 다른 사안과 혼동하여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A 씨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A 씨가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은 법률 착오에 의한 책임 조각으로 판단한 것이다.

## 정답 설명

대법원이 A 씨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오인을 회피하려는 A 씨의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책임이 곧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면서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오답 설명 | 많이 고른 순서대로

- ⑤: A 씨는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관계 기관에 문의했으므로 법률의 존재를 알았다. 관련 법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은 판례상 법률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A 씨는 미숫가루 제조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공무원에게 받았다. 즉 해당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인 위법성 인식이 없었을 것이다.
- ②: 법률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관련 법에 조항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판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A 씨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벌을 면한다고 판결을 받았다.
- ④: 법률 착오에 의한 책임 조각에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즉 관계 기관의 공문을 그대로 믿은 A 씨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4 답 ③

어휘의 문맥적 의미 ★☆☆☆☆

## 정답 설명

㉢의 '말하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어떤 사정이나 사실, 현상 따위를 나타내 보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는 ③번 선지에 쓰인 '말하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 오답 설명

- ①: ㉠의 '묻다'는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라는 의미로 쓰인 반면, 여기서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②: ㉡의 '뜻하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다.'라는 의미로 쓰인 반면, 여기서는 '무엇을 할 마음을 먹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④: ㉣의 '모르다'는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반면, 여기서는 '어떤 것 외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⑤: ㉤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라는 의미로 쓰인 반면, 여기서는 '호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책임 조각 사유로서의 법률 착오

제시되는 개념들 간의 층위가 얽혀 있고, 중심 화제의 범위가 좁아서 더욱더 독해에 집중이 필요한 지문이다. 각각의 개념과 이들 간의 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하며 읽어 나가자.

### 문단 1 형법에서의 책임과 책임 조각 사유

- 1) 형법상 **‘책임’**이란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 ▶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책임’이다. 바꿔 말해, 어쩔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 2) 근대 이후의 형법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행위 당시의 상황이 비정상적이어서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책되는 사유를 **‘책임 조각 사유’**라 한다.
  - ▶ ‘책임 조각’에 대한 설명이다. 책임이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으면 범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 3) 그중 **‘책임 무능력’**은 어떤 위법한 행위가 강요나 심신 상실(心身喪失)에 의한 것이라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는 사유를 말한다.
  - ▶ ‘책임 무능력’은 강요나 심신 상실에 의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책임 조각 사유이다.
- 4) 그 외에 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책임 조각 사유로 **‘법률 착오’**가 있다.
  - ▶ **주목** | 첫 문단에서는 의식적으로 지문의 초점을 파악해야 한다. ‘법률 착오’는 또 다른 책임 조각 사유인데, 지문에서는 책임 무능력이나 아닌 법률 착오를 화두로 삼고 있다. 법률 착오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성립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 맥락 짚기

‘그중’이라는 표현에 유의하자. ‘책임 조각 사유’는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책임 무능력’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책임 무능력 외에도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하위 개념이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 문단 2 위법성 인식과 법률 착오

- 1)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 인식이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위자의 인식**을 뜻한다.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은 처벌의 핵심 근거가 된다.
  - ▶ ‘위법성 인식’은 말 그대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지를 인식한다는 뜻이다. 위법을 인식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처벌의 근거가 된다.
  - ▶ **주목** | 지문의 초점을 고려했을 때, ‘법률 착오’는 위법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법성 인식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 조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문단(3)에 따르면,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책임 무능력이 성립해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
- 2) 다만 위법성 인식에 있어 법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나 형량 등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 위법성 인식이 법 조항이나 형량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절도죄에 대한 법 조항이나 형량을 모르고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책임이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 3) **법률 착오**란 행위자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한 인식은 있으나 착오나 오인(=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으로 인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 **주목** | ‘법률 착오’의 개념적 의미가 정리되고 있다. 즉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는 인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범죄인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문단 3 형법상 규정**

1) 우리 형법은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법률 착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법률 착오에 대한 형법상의 규정이다. 여기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즉 아무 ‘착오나 오인’이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 여기서 ‘오인한 행위’에는 관련 법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 세상에 널리 알려지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설)이지만, **판례**는 이것이 법률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운전자가 변경된 교통 법규를 모르고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지 않는다.

▶ ‘오인한 행위’에 대한 해석은 ‘통설’과 ‘판례’가 갈린다. 두 관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자.

통설	판례
관련 법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상황도 ‘오인한 행위’에 포함된다. ⇨ 법률 착오가 맞으므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상황은 ‘오인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률 착오가 아니므로, 처벌을 면하지 않는다.

3) 또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률 착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개는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고 타인의 개를 사살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지 않는다.

▶ 법률 착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가 추가로 제시되고 있다.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문단 4 형법상 정당한 오인**

1)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6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오인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때에 한정된다.**

▶ 문단1-2)의 내용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책임 조각’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서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곧 ‘오인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예컨대 선물로 받은 뇌물은 뇌물 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막연하게 믿고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때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나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잘못 전달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 변호사와의 상담]을 했기 때문이다.

▶ 주어진 예시에서 행위자는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오인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3) 이처럼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은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않음을 뜻한다.

▶ 법률 착오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은 곧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리이다.

4) 다만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관련 법에 과실범에 관한 조항이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어 과실범으로 판결하기도 한다.

▶ 다만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면 본인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주목** | 이때 ‘과실범에 관한 조항’의 유무가 중요하다.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함 + 과실범에 관한 조항이 있음’이 성립한다면 법률 착오로 책임이 조각되는 대신에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맥락 짚기**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으니 적극 활용하자. 앞선 설명에 대응하며 이해하면 된다.

2027학년도 수능 국어 개념 학습

# 월간 간쓸개 프리뷰 **문학**

- 매주 한 개념, 매일 1지문
- EBS 학습 전, 개념 체계 확립
- 4주 구성, 문학 개념 4개+16set

# INDEX

문학		권장 시간	문제편	해설편	
01	개념 학습	시와 소설의 시간과 공간	-	8쪽	-
	현대시	백석, 「남신의주 유등 박시봉방」 / 윤동주, 「참회록」	9분	16쪽	70쪽
	고전시가	윤선도, 「어부사시사」 / 김인겸, 「일동장유가」	9분	18쪽	71쪽
	고전소설	작자 미상, 「정음선전」	8분	20쪽	73쪽
	현대소설	박태순, 「무너진 극장」	8분	22쪽	74쪽
02	개념 학습	시와 소설의 소통 구조	-	24쪽	-
	현대시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송수권, 「나팔꽃」	9분	30쪽	76쪽
	고전시가	신계영, 「전원사시사」 / 홍계영, 「희설」	9분	32쪽	77쪽
	고전소설	작자 미상, 「운영전」	9분	34쪽	79쪽
	고전소설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9분	36쪽	80쪽
03	개념 학습	시의 문장(다양한 표현 방법)	-	38쪽	-
	고전시가	이휘일, 「저곡전가팔곡」 / 작자 미상, 「갑민가」	9분	44쪽	82쪽
	현대시	김소월, 「접동새」 / 김지하, 「새」	9분	46쪽	83쪽
	현대시	정한모, 「나비의 여행-아가의 방 5」 / 김광규, 「상행」	8분	48쪽	85쪽
	고전시가	안도환, 「만언사」	8분	50쪽	86쪽
04	개념 학습	소설의 문맥 / 〈보기〉 적용 - 외적 준거	-	52쪽	-
	현대소설	염상섭, 「만세전」	9분	60쪽	88쪽
	고전소설	작자 미상, 「최고운전」	8분	62쪽	89쪽
	고전시가	권구, 「병산육곡」 / 정철, 「관동별곡」 / 〈보기〉 김광필의 한시	8분	64쪽	90쪽
	현대시 수필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강은교, 「사랑법」 / 이어령, 「창조의 조건」	10분	66쪽	91쪽

# STUDY PLAN

- 매일 조금씩 차근차근 공부하기!
- 꾸준한 학습으로 국어의 감 잡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01	개념 학습 <input type="checkbox"/>	현대시 <input type="checkbox"/>	고전시가 <input type="checkbox"/>	고전소설 <input type="checkbox"/>	현대소설 <input type="checkbox"/>
	시와 소설의 시간과 공간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윤동주, 「참회록」	윤선도, 「어부사시사」 김인경, 「일동장유가」	작자 미상, 「정음선전」	박태순, 「무너진 극장」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02	개념 학습 <input type="checkbox"/>	현대시 <input type="checkbox"/>	고전시가 <input type="checkbox"/>	고전소설 <input type="checkbox"/>	고전소설 <input type="checkbox"/>
	시와 소설의 소통 구조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송수권, 「나팔꽃」	신계영, 「전원사시가」 홍계영, 「희설」	작자 미상, 「운영전」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03	개념 학습 <input type="checkbox"/>	고전시가 <input type="checkbox"/>	현대시 <input type="checkbox"/>	현대시 <input type="checkbox"/>	고전시가 <input type="checkbox"/>
	시의 문장 (다양한 표현 방법)	이휘일, 「저곡전가팔곡」 작자 미상, 「갑민가」	김소월, 「접동새」 김지하, 「새」	정한모, 「나비의 여행-아가의 방 5」 김광규, 「상행」	안도환, 「만언사」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04	개념 학습 <input type="checkbox"/>	현대소설 <input type="checkbox"/>	고전소설 <input type="checkbox"/>	고전시가 <input type="checkbox"/>	현대시-수필 <input type="checkbox"/>
	소설의 문맥 / 〈보기〉 적용 - 외적 준거	염상섭, 「만세전」	작자 미상, 「최고운전」	권구, 「병산육곡」 정철, 「관동별곡」 〈보기〉 김광필의 한시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강은교, 「사랑법」 이어령, 「창조의 조건」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습 여부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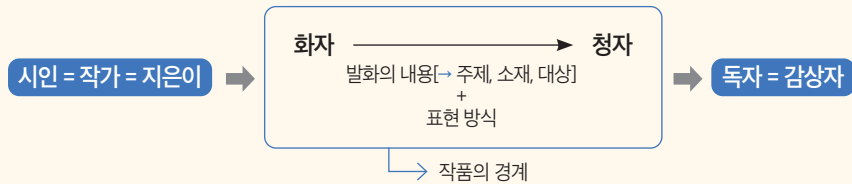
# Checklist

✓ 2차 독해 시간은 '충분히'

문학		독해 시간	맞은 문항 수	체감 난이도	
01	개념 학습	시와 소설의 시간과 공간	충분히	-	-
	현대시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윤동주, 「참회록」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고전시가	윤선도, 「어부사시사」 / 김인겸, 「일동장유가」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고전소설	작자 미상, 「정음선전」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현대소설	박태순, 「무너진 극장」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02	개념 학습	시와 소설의 소통 구조	충분히	-	-
	현대시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송수권, 「나팔꽃」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고전시가	신계영, 「전원사시가」 / 홍계영, 「희설」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고전소설	작자 미상, 「운영전」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고전소설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03	개념 학습	시의 문장(다양한 표현 방법)	충분히	-	-
	고전시가	이휘일, 「저곡전가팔곡」 / 작자 미상, 「갑민가」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현대시	김소월, 「접동새」 / 김지하, 「새」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현대시	정한모, 「나비의 여행-아가의 방 5」 / 김광규, 「상행」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고전시가	안도환, 「만연사」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04	개념 학습	소설의 문맥 / 〈보기〉 적용 - 외적 준거	충분히	-	-
	현대소설	염상섭, 「만세전」	· 1차: 분 초 · 3차: 분 초	/4문항	上 / 中 / 下
	고전소설	작자 미상, 「최고운전」	· 1차: 분 초 · 3차: 분 초	/3문항	上 / 中 / 下
	고전시가	권구, 「병산육곡」 / 정철, 「관동별곡」 / 〈보기〉 김광필의 한시	· 1차: 분 초 · 3차: 분 초	/3문항	上 / 中 / 下
	현대시 수필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강은교, 「사랑법」 / 이어령, 「창조의 조건」	· 1차: 분 초 · 3차: 분 초	/5문항	上 / 中 / 下

## 시의 소통 구조

시의 기본은 '소통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시는 현실에 실존하는 '작가'가 '작품'이라는 가공의 세계에 '화자'를 설정하고, 그 '화자'를 통해 내용을 진술하게 된다. '독자'는 그 '화자'의 진술을 '작품'이라는 형태로 전달받고 감상하게 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작가'나 '독자'는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인물들이지만, '화자'나 '청자' 혹은 '대상' 인물은 '작품'이라는 가공의 세계에 존재하는, '작가'라는 존재에 의해 설정된 인물들이다. 모든 시에는 '화자'와 '내용'은 마땅히 담겨 있지만, '청자'라는 존재는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대화체' 문장과 '독백체' 문장이 구분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도 '청자'의 유무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대화체'와 '독백체'

➔ **대화** :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러한 상황.

**대화체** :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체.

'밥 먹었니?'라는 문장은 '화자'가 틀림없이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건네고 있는 느낌이 든다. 반면 '아, 배고파.'라는 문장은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면, '화자'가 누군가를 향해 건넨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화자'의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이 경우 '향단'이라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고, '향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는 '대화체' 문장으로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 **독백** : 혼자서 중얼거림.

**독백체** : 독백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체.

**독백적 어조** : 혼자서 중얼거리는 듯한 말투.

'독백체'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청자'가 작품 안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화자'가 혼자서 읊조리는 듯한 문체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생략

(나)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  
 에 쥐고 곱비임비\* 임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통탕 건  
 너가서 정(情)엿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  
 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옷길 뻔하였어라.

-작자 미상-

- \* 거머희뜩: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 곱비임비: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 천방지방: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 삼대: 삼[麻]의 줄기.

4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a.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b.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 ② 화자가 '임'이라 여긴 '거머희뜩'한 것을 향해 '워렁통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임'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
- ⑤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a: 일반적으로 독자가 화자[→ 서술자나 인물이 이 자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다.]와 '거리를 두는 것은 비판적 시선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화자의 심정이나 진솔에 밀착[→ 공감/동일시/동화하기보다는 거리를 둬으로써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내재한다. 하지만 a에서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낸다'는 것은 화자의 행위, 진솔, 심정에 대해 관찰자[→ 혹은 제3자]의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과 수용의 시선을 보낸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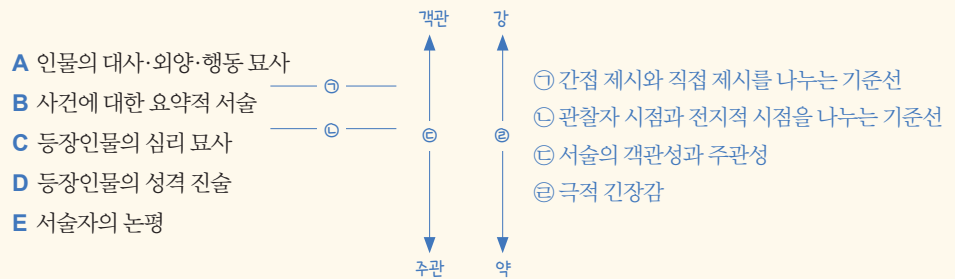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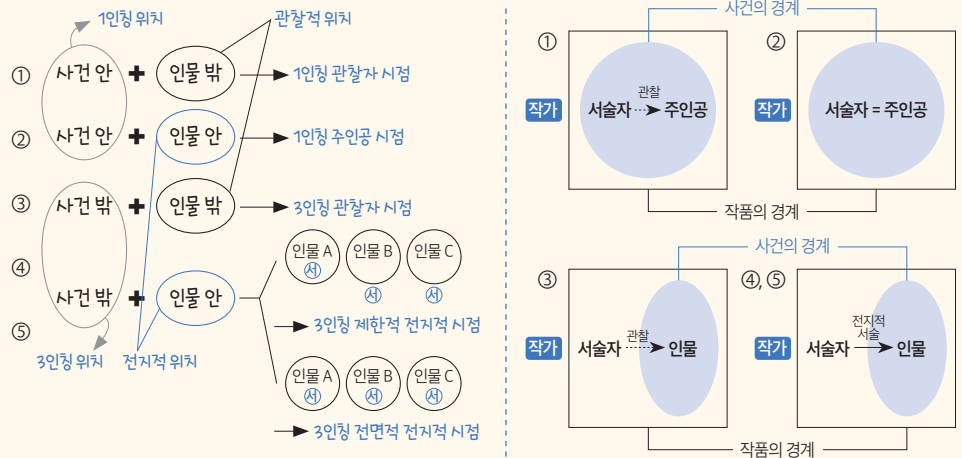
b: <보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해학성은 풍자성과는 달리, 비웃음이나 냉소가 아니라 화자의 행위, 진솔, 심정을 이해하는 가운데 짓는 미소의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b는 a의 진솔에 대한 부연의 성격을 지닌다.

독자는 화자의 착각 때문에 '웃음'을 짓기는 하지만, '암'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에 공감하며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①, ③, ④, ⑤번 선지의 밑줄 친 부분은 오독이다.

# 소설의 소통 구조

소설의 소통 구조는 '작가-서술자-인물/발화자/청자-독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시의 소통 구조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상으로 들어가면 소설의 소통 구조는 시점 및 거리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작품의 서술상 특징 혹은 서사적 특징을 묻는 문제로 구현된다. 또한 지문의 특정 부분에 나타난 서사적 특징을 묻는 문제로도 구현된다. 최근 들어 시점이나 거리 등에 관한 문제를 서술상의 특징, 인물의 심리, 작중 상황과 결합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시점[→ 사건과 인물을 기준으로 하는 서술자의 위치]의 종류와 문장 서술 방식에 따른 효과를 순서대로 도식화하여 살펴보자.



## 2019학년도 수능 현대소설 + 시나리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가)</p> <p>[A] &lt;전략&gt;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게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p>	<p>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lt;후략&gt;</p> <p>(나) - 생략</p>
--	--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a.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b.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①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속 짓는 서술 효과다. 서술자가 자신이 앞서 서술했던 내용을 독자에게 상기시키는[→ 서술자가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다.
- ② '수다스러운 점롱이 어머니'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독자에게 묻고 있다.
- ③ '실현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a는 오독이다. 또한 기억하고 계속 짓는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b 역시 오독이다.
- ④ 강원도 춘천 같은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라고 했다.

2020학년도 수능 현대소설 (지문 생략)

3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 ② 서술자인 성인 '나': 이야기 속의 유년 '나'와 서술자를 구별하는 표현이다. 성인 '나'가 서술자라면 유년 '나'는 동일인이지만 인물의 성격에 가깝게 된다. 성장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분이다. 회상의 주체와 회상의 대상으로 정리하자.
- ③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독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내막을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다.
- ④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 서술자가 별도의 해석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된다.
- ⑤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 회상의 주체[→ 성인 '나']가 회상의 대상[→ 유년 '나']의 기억을 통해 하나가 되어 몰입하는 상황이다. 현장감은 극대화되고, 독자는 묘사된 내용에 대한 해석에 참여하게 된다. 유년 '나'의 심리가 서술되면 묘사된 내용에 대한 '나'의 반응 혹은 해석이 포함될 것이고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게 된다.

- ① ㉠의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라는 서술은 인물의 내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의 첫째 경우이다.
- ② ㉡은 <보기>의 둘째 경우이다. '나' 또한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독자가 해석에 참여하는 상황인 것이다.
- ③ ㉢의 '맞보기가 민망'하다는 서술이 유년 '나'의 느낌을 가리키므로, 유년 '나'가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한 경우, 즉 셋째 경우이다.
- ④ ㉣은 ㉢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유년 '나'의 시선에서 서술되어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 ⑤ ㉤은 유년 '나'의 시선에 비친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묘사'이므로 셋째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나타나 있지는 않다. '넋 나간 사람처럼'은 인물의 표정에 대한 묘사이자 '나'의 심리라고 보기 어렵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들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십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편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㉔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일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야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나)

㉔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뺨은 더**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매어  
달고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 송수권, 「나팔꽃」-

\* 바지랑대 :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독해 TIP

(가)는 부정적인 시대상에 대한 비판과, 사회의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소  
시민적 태도에 대한 자조를 드러낸 작품이다. (나)는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지닌 '나팔꽃'  
을 관찰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아낸 작품이다. (가)에서는 대조적 상황 설정을 통해 본질  
적인 문제에는 항거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옹졸한 태도에 대한 자기반성과  
이를 통한 문제의식 표출에, (나)에서는 자연물을 관찰하며 한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  
고 노력하면 의미 있는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삶의 교훈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 주목  
해 보자.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 하고, (나)는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 정취를 부각한다.
- ② (가)는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나)는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모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제5연의 1~2행에서, (나)는 2~3행에서 행간 결집을 활 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사실을 활용하여 화 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진술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 식을 부각한다.

2. ㉠와 ㉡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가 다다를 수 없는 세계이고, ㉡는 시적 대상에게 금지된 세계이다.
- ② ㉠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상태이고, ㉡는 시적 대상에게 한계로 주어진 상황이다.
- ③ ㉠는 화자를 억압하는 현실을 상징하고, ㉡는 시적 대상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을 표상한다.
- ④ ㉠는 화자를 각성하게 하는 가치의 표상이고, ㉡는 시적 대상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방해물이다.
- ⑤ ㉠는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장소이고, ㉡는 시적 대상의 추구가 실패로 귀결되는 장소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수영은 자유의 실현을 가로막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데 주력한 시인이다. 그가 비판하는 현실에는 억압적 정치권력은 물론, 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 또한 포함된다. (가) 역시 자유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자유의 실현을 위해 나서지 못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고발이 함께 담겨 있는 작품이다.

- ① 화자는 '불잡혀 간 소설가'나 '언론의 자유'를 언급하며 억압적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 ② 화자는 '스편지를 만들고 거즈를/개키'던 일을 떠올리며 그 일이 부정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는 '개의 울음소리'나 '애늬의 투정'에도 '진다'고 하며 작은 불의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하고 있다.
- ④ 화자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조차 자신에게는 '가시밭'이라고 하며 고뇌로 가득 찬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자신이 '모래'나 '먼지'처럼 작다는 생각을 드러내며 자유의 실현을 위해 나설 책임을 회피하는 자신의 태도를 고발하고 있다.

! 시의 소통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익힌다.

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가)가 대립적인 성격을 띤 상황을 제시하며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초점화된 시적 대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는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성찰을, (나)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는 삶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작품을 살펴봅시다.

- ① (가) : '왕궁'과 '오십 원짜리 갈비'나 '땅 주인'과 '이발쟁이' 등에 대한 자신의 태도 차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데서, 대립적인 성격을 띤 상황을 통해 자기 삶의 태도에 대한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 :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옹졸하게 반항한다'고 한 것은, 자신의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나) :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을 반복하여 자신이 관찰한 나팔꽃의 변화를 부각한 것에서, 시적 대상에 초점화된 화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 : '허공에 두 뺨은 더 자라' 있는 나팔꽃 줄기를 묘사하며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라고 한 것에서, 시적 대상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나) : 나팔꽃을 '종'에 빗대어 표현한 후 '우리의 아픔'을 '푸른 종소리'에 연결 지은 것에서, 나팔꽃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통이 승화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1~4] 현대시

(가)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나) 송수권, 「나팔꽃」

▶ (가) 작품이 어려웠다면, 지문 분석 103쪽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 1 답 ①

표현상 특징 ★☆☆☆☆

## ○ 정답 설명

(가)에서는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애늬’ 등 비속어를 사용하여 힘없는 대상들을 향한 화자의 분노를 부각하고 있지만, (나)에는 방언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토속적인 정취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 ✕ 오답 설명

- ②: (가)에서는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십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의 일을 떠올리며 그때의 일과 현재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것이 같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더 자라 있는 나팔꽃의 변모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제5연 1~2행에서는 ‘얇고’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절정 위에는 서 있지’와 ‘얇고’ 사이에 의도적으로 행간이를 한 행간 걸침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2~3행에서는 ‘자라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허공에 두 뺨은 더 자라서’와 ‘꼬여 있는 것이다’ 사이의 의도적으로 행간이를 한 행간 걸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는 ‘설령탕집’에서의 일이나 돈을 받으러 오는 ‘야경꾼’과의 일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반성을, (나)는 마당에 있는 나팔꽃을 관찰한 일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정말 얼마큼 적으냐……’라는 의문형 진술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벌일까’라는 의문형 진술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삶에 대한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2 답 ②

시어의 의미와 기능 ★☆☆☆☆

## ○ 정답 설명

(가)의 화자는 ㉠[→ ‘절정 위’]가 아닌 그 ‘옆으로 비켜서 있’는 자신의 행동이 ‘비겁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삶의 태도이자 지향하는 삶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바지랑대’는 나팔꽃 덩굴이 자랄 때 지지하는 막대를 의미하며, ㉢[→ ‘바지랑대 끝’]은 그 지지대의 끝으로 나팔꽃이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지점을 의미한다. 즉 ㉣는 시적 대상에게 한계로 주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 오답 설명

- ①: (가)의 화자가 ㉠에서 있지 않은 것은 화자의 소극적이고 낙약한 태도 때문이지, ㉡가 화자가 다다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 아

니다. (나)에서 나팔꽃은 화자의 예상과 달리 ㉤를 넘어서 자라고 있으므로 ㉥가 나팔꽃에게 금지된 세계라고 볼 근거는 없다.

- ③: ㉢는 억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할 뿐 ㉣ 자체가 화자를 억압하는 현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는 나팔꽃이 더 이상 지지할 데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나팔꽃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과는 관련이 없다.
- ④: ㉣가 부정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태도와는 상반된 삶을 상징한다면, ㉥는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의 화자를 각성하게 하는 자유나 정의와 같은 가치의 표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는 나팔꽃이 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을 의미할 뿐, 나팔꽃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방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⑤: ㉠에서 있지 못한 (가)의 화자가 ㉡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서 나팔꽃은 ㉤를 넘어서 계속 자라고 있으므로, ㉥가 나팔꽃의 추구가 실패로 귀결되는 장소라고 할 수 없다.

## 3 답 ③

&lt;보기&gt;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

## ○ 정답 설명

화자에게 ‘개의 울음소리’나 ‘애늬의 투정’은 일상에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마치 ‘기름 덩어리’만 가득한 ‘오십 원짜리 갈비’나 ‘이십 원을 받으러’ 여러 차례 찾아오는 ‘야경꾼’과도 같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이처럼 일상 속에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그마한 일’들을 참지 못하고 분개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개의 울음소리’나 ‘애늬의 투정’에도 ‘진다’고 한 것 역시 이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개의 울음소리’나 ‘애늬의 투정’을 불의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진다’라는 표현이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낙약함에 대한 자책을 의미한다는 진술 또한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는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도 현실을 억압하는 정치권력과 같은 거대한 것들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지, 작은 불의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다.

## ✕ 오답 설명 [많이 고른 순서대로]

- ④: 화자는 현실의 거대한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사람이다. 이는 화자가 현실의 거대한 부당함에는 분개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소시민성에 갈등하며 고뇌로 가득 찬 화자의 내면이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조차 자신에게는 ‘가시밭’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가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에서 화자는 ‘모래’나 ‘먼지’와 같이 작은 것들을 부르며 자신이 그만큼 작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자유의 실현을 위해 나서지 못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화자는 과거에 포로수용소에서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 개키’던 일이 현재의 자신이 ‘반항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즉 화자가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 개키’는 일을 한 것은 포로들을 감시하는 ‘포로 경찰’이 되는 것,

즉 동료들을 배신하고 감시자의 편에 서는 일에 대한 자기 나름의 반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 화자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과거의 자신이나 현재의 자신 모두 부정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 ①: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 언론의 자유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문화계나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권력을 환기한다.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 맞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통해 억압적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 답 ④** 외부 정보에 따른 작품 감상 ★★☆☆☆

**정답 설명**

(나)에서 나팔꽃은 화자가 '끝이다 끝'이라고 하며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다르게 '다음 날 아침'에 '허공에 두 뺨은 더 자라' 있다. 화자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팔꽃 줄기를 지지할 것이 없으므로 이제는 진짜로 자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다. 즉 화자는 의지할 데 없이 시련과 고통을 겪는 현실에서는 나팔꽃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설명**

- ①: (가)에서 '왕궁'이나 '땅 주인' 등은 화자가 화를 표출하지 못하는 거대한 대상이며, '오십 원짜리 갈비'나 '이발쟁이' 등은 화자가 욕하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소한 대상에 해당한다. (가)에서는 이처럼 대립적인 성격을 띤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 차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거대한 것들에는 맞서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땅 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 야경꾼에게' 화를 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응졸하게 반항한다'고 말한다. 선생님의 안내를 참고하면 이는 자신의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나)에서는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자라 있는 나팔꽃에 대한 관찰이 세 차례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뒤집고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 있는 나팔꽃의 변화에 초점화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에서는 나팔꽃이 피어난 모습을 '중'에 빗대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중'을 달고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로부터 화자는 '우리의 아픔'을 떠올리며 '우리의 아픔' 또한 나팔꽃처럼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가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즉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꽃을 피워 낸 나팔꽃의 모습을 '푸른 종소리'라는 공감각적 표현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고통이 승화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푸른 종소리'는 나팔꽃이 겪은 시련과 고통에서 상처에 멍이 든 모습을 연상하여 시각적 이미지인 '푸른'을 떠올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8] 고전시가**

- (가) **신계영, 「전원사시」**  
(나) **홍계영, 「희설」**

→ (나) 작품이 어려웠다면, 지문 분석 105쪽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5 답 ②** 표현상 특징 ★★☆☆☆

**정답 설명**

(나)의 '네 시절 얼마나 가리 삼동(= 겨울의 석 달)이 거의로다' [→ 너의 시절이 얼마나 가겠느냐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갔도다]와 '수많은 산과 골짜기서 네 얼굴 보려 한들 어디 가 얻겠는가'는 눈에게 건네는 말이다. 즉 의인화된 눈을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눈이 녹아 사라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목 만물 중에 너 같은 이 또 뉘런고'는 의인화된 소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소나무의 불변성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고 있는 시구이다.

**오답 설명**

- ①: (가)에서 어순을 도치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가)의 경우 <제1수> 중장의 '버들가지 누르렀다'에서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봄기운이 완연해진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물의 역동성과는 무관하다. (나)의 경우 전체적으로 흰색을 활용하여 눈 쌓인 풍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푸른색을 활용하여 눈 오기 전의 산[→ '청산', '남산의 푸른 기운', '삼각산 푸른빛']의 모습을 표현하거나 눈 속에서도 변함없이 푸른 소나무[→ '푸른 솔']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정지된 풍경을 그리는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역동성과는 무관하다.
- ④: (나)의 '봄 냇가의 도리화는 천시를 슬퍼하고 / 추풍의 흰 이슬은 아침을 원망하네'에는, 아름답지만 쉽게 녹아 사라지는 눈을 보며 화자가 느낀 감정이 '도리화'가 슬퍼하고 '흰 이슬'이 '아침을 원망'한다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감정 이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 '봄의 신이 대로하여 불 수레를 바삐 모니 / 이글거리는 천지가 큰 화로에 들어어라'는 계절이 바뀌어 날이 더워지는 것 또는 태양이 떠올라 한낮이 되는 것을 상상적으로 표현한 대목으로, 추상적 대상을 시각화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에 대상의 속성을 점층적으로 나열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6 답 ③** 시구의 의미와 기능 ★★☆☆☆

**정답 설명**

(가)의 <제6수>에서 화자는 국화주를 마시는 풍속이 있는 중앙이 가까워 옴을 인식하고 '아이'에게 '안주'를 준비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올벼로 빛은 술이 하마 아니 익었느냐'에는 술을 마시며 계절의 흥취를 즐기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7수>의 초장과 중장에는 겨울날 '석양' 무렵

# 1개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유사한 구조나 내용이 반복·변주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화자는 억압적 정치 상황 아래 소시민적 삶을 사는 자신을 자조함으로써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 전체의 구조나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 보자.

## 제 1~2연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나'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고 욕을 한다. '나'가 욕을 하는 대상은 만만한 상대들[→ '기름 덩어리' 갈비, '설렁탕집' 주인]이다. 힘센 상대, 즉 거대한 권력[→ '왕궁',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도 분개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자신을 웅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중요하고 있는가

▶ '나'는 언론의 자유와 월남 파병 반대의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즉 정치권력 등 거대한 힘의 억압에는 저항하지 못한 채 힘없고 만만한 야경꾼들만 중요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제 3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지속된 '나'의 웅졸함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 '나'의 이러한 웅졸함[→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것은 아득하게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습관으로 정착할 정도의 감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십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 과거의 사건]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는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 과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지속된 '나'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포로 경찰'은 포로들 중에서 포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로, 포로의 입장에서 동료를 배신하고 감시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다.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개키'는 일은 포로 경찰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힘센 상대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하는 화자가 선택한 소극적인 저항이었던 것이다.

대군은 저희의 초사를 다 읽고 자란의 초사를 다시 펼쳐서 읽더니 노기를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중략) 대군은 마침내 저를 별당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풀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다짐한 운영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즉 현재 시점에서 유명한 꿈속에 등장한 운영은 이미 죽은 인물인 것이다.

## 토막 2 뒤를 이어 이야기를 시작하는 김 진사

진사가 붓을 들어 운영이 회상한 옛일을 기록하니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였다.[→ 3인칭 시점으로 전환]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며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다가, 운영이 진사에게 말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낭군께서 말씀하세요.”

이에 진사가 운영의 뒤를 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술 주체의 전환]

▶ 운영을 진술 주체로 삼아 서술되던 이야기가, 3인칭 시점으로 전환되었음에 주목하자. 이는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내부 이야기가 중단되고 외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진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김 진사를 진술 주체로 삼아 다시 내부 이야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 토막 3 운영의 혼령을 위로하려 했던 김 진사

운영이 자결한 뒤에 궁중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를 잃은 듯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진술 시작] 통곡 소리가 궁문 밖까지 들려, 저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오랫동안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집안사람들은 저를 살리고자 애쓰면서 한편으로 장례 준비를 했었지요. 저는 날이 저문 뒤에야 겨우 깨어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은 이미 끝났다. 남은 재산을 팔아 부처님께 공양하라는 운영의 부탁이나마 지켜 구천에 떠도는 혼령을 위로하리라.’

저는 운영이 남긴 팔찌와 거울, 그리고 저의 문방제구들을 모두 팔아 쌀 사십 석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으로 청량사에서 불공을 드리려 했으나 믿고 맡길 하인이 없어 특[→ 앞서 김진사를 배신하고 음모를 꾸민 하인]을 불렀습니다.

“너의 지난날 죄를 모두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라도 내게 충성을 다하겠느냐?”

특이 엎드려 울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둔하나 아무 감정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 죄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도 셀 수가 없는데 저를 용서해 주신다니, 죽은 나무에 잎이 나고 해골에 새살이 돋는 것 같습니다. 어찌 진사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태도]

“내가 운영을 위해 제물을 갖추고 불공을 드리 소원을 빌려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네가 가 주겠느냐?”

“삼가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 운영이 죽은 후, 삶의 의지를 잃은 김 진사는 불공을 올려 달라는 죽은 운영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혼령을 위로하려 한다. 그는 앞서 자신을 배신했던 하인 ‘특’을 다시 한번 믿어 보는데, 이는 김 진사에게 닥칠 또 다른 비극을 암시한다.

특은 즉시 절에 올라가 사흘 동안 불기 짝을 두드리며 누워 있다가 스님 하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쌀 사십 석을 어찌 불공에 다 쓰겠나? 술과 고기를 많이 마련하고 속세 손님들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게 좋겠군.”[→ 김진사의 지시를 무시한 발화]

특이 승방에 머문 지 십여 일이 지나도록 도무지 제사 지낼 뜻이 없자[→ 특의 불성실한 태도] 스님들은 모두 분하게 여겼습니다. 마침내 제사 지낼 날이 되자 여러 스님들이 말했습니다.

“불공에는 공양하는 분의 정성이 가장 중한데, 공양하는 분이 이처럼 불결하니 참으로 좋지 못합니다. 맑은 시내에서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한 후에 예를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